

지역 소식통

완주, 안심식당 추가 모집

안심식당 우수지자체인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모집해 지원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한다.

음식물어묵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비치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음식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되는 업소에는 안심식당 간판 키파이, 수저집, 때먹는 국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희망사항은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및 참여 서약서를 작성해 완주군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팀(20-2705)에 내달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찾아가는 회계실무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8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회계실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2021 찾아가는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찾아가는 현장교육"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는 지방회계통계센터 회계실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오 사무관(대전광역시)이 초빙되었으며 회계의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세부 집행기준, 주요 감사사례 등 오랜 회계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 회계과장은 "회계업무는 책임감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이번 교육을 통해 회계실무 역량강화의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운 · 물류로 김제의 미래 가치 창출

김제시, 새만금 신항 연계 미래산업 비전 학술대회 개최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구축 · 운영방안 등 섹션 별 진행
미래지향 항만 기반사업 발굴 · 해양레저 활성화 등 모색

김제시는 지난 17일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 미래산업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Symposium)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제시 항만연계 미래산업 육성방향', '새만금 항만경제특구(배후물류단지)구축 및 운영방안', 김제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등 세가지 섹션(section)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항만·물류 및 해양레저 관광분야에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를 갖춘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김제시의 미래지향적 항만 기반산업 발굴과 미래산업 전략적 육성 방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학술대회를 맡아 진행한 한국항만경제학회 서문성 회장은 새만금 신항을 국내·외 무역 항만과의 차별화, 특성화 전략을 계획 실행하고 해운 물류를 통해 미래산업 비전을 창출 하하고자 노력하는 김제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행정이 새만금 신항을 동아시아, 환황해권을 넘어 세계적인 항만으로 조기에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김제시도 신항만과 함께 국제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리되는 김제시 미래산업 정책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학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김제시는 지난 17일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 미래산업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Symposium)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행사 참여 인원을 제한한 반면, ZOOM 회의 및 인터넷 TV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진행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박준배 시장은 "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산업 비전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해운 물류와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 산업발견과 21세기 환황해권 국제해양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혁신도시형 공유경제 협동조합 설립 추진

완주군, 앞서 4월 참여자 모집부터 시작 지난달 '공공기관 기부데이' 까지 진행
삼락로컬마켓서 1차 판매행사... 내일 · 21일 같은장소에서 2~3차 판매행사 열어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이접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혁신도시형 공유경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미 지난 4월에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5월과 6월에는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공유경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이접기관의 협조를 구해 '공공기관 기부데이'를 추진하기도 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기관에서 기증받아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단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들은 의류, 식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기증해줬다.

이에 군은 지난 18일 전북삼락로컬마켓 1층 야외에서 1차 판매행사를 진행했고,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8시,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같은 장소에서 2·3차 판매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유마켓(삼락로컬마켓 2층)에 제로웨이스트숍 구축을 위해 쓰여진다.

이어 9월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유마켓(제로웨이스트숍 포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은 "혁신도시 이접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유마켓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유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이용하세요"

부동산 거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tsm.ott.go.kr)에 접속해 종이 계약서,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이점으로 꼽힌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돼 수수료가 면제되고 파

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돼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양측에 장점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및 이종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김제시 하계수 민원지원과장은 "김제시 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 및 전자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2017년 8월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김제시 내 중개사무소는 29곳이고 현재까지 80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전자계약으로 체결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진봉면은 18일 관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인 망해사의 4곳을 찾아 총 45명 참여자들에게 개인위생과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 · 건강이 즐거운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요'

김제시 진봉면,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 격려 · 예방수칙 안내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18일 관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인 망해사의 4곳을 찾아 총 45명 참여자들에게 개인위생과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쉼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지역의 봄향기'의 합치에 대표가 기탁한 미숫가루와 함께 쉼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기피제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바쁜 업무에도 지회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면장님과 기탁품을 비롯하여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오승영 면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모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한 진봉면을 만드는데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히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업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